



# 임금피크제,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하려는 정몽구 정부 지침 발표, 법 개악도 우리의 조건 악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10월 투쟁을 결의하자

결국 올해 임단협이 파행을 맞았다. 윤갑한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노동자들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으로만 1백조 원 넘게 쌓아두고도 우리를 더 쥐어짜려 안달한 사측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측이 “정부가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듯이, 정부는 현대차에서 노동 개악 추진과 어긋나는 협상안이 나오지 않도록 압박했다. 그전 몇 달 동안도 정부와 여당은 한편으로는 ‘불법 파업 일삼는’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차그룹이 노동 개혁에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띄워 왔다.

## 임단협 파행이 보여 주는 것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한 이경훈 집행부의 대응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경훈 집행부는 그에 걸맞은 무기를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지난해 임투에서 통상임금의 협상시한을 올해 3월 말로 넘기며 투쟁의 기회를 놓쳤고,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들고 나왔는데도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논의 시한을 거듭 연장하며 교섭에만 매달렸다.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는 현대



차지부의 위상으로 보자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사측에 맞서 단호한 파업을 하면서 그것을 정부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하려 해야 마땅했지만, 이경훈 집행부는 오히려 4·24 총파업을 “억지파업”이라며 초를 뿌렸다. 추석 전 4시간, 6시간 파업도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과 연결하지 않았다.

임단협이 파행을 맞자 이경훈 집행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정권의 외압”을 이유로 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 개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도 예측하지 못했다

## 새로 나왔습니다



‘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김하영 지음 | 노동자연대 | 119쪽  
4,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363-5695(정동석)

웹사이트 workerssolidarity.org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 일 뿐이다.

이경훈 위원장은 매번 '왜 현대차지부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앞장서야 하나요'라고 불평했지만, 그런 협소하고 조야한 관점의 결과는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투쟁은 뒷전에 둔 채 협상에만 매달리면서 사측이 짜놓은 교섭구도 안에서 우리의 요구도 야금야금 후퇴시켰다.

이번 입단협 파행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사측이 우리의 조건을 악화시키려고 달려드는 지금, 그동안 쌓아 온 우리의 조직력을 총동원한 투쟁을 단호하게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힘을 정부의 노동개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쏟아야 비로소 단사 투쟁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파산한 지금, 8+8 양보안을 포함해 그동안의 양보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다시 입단투가 시작될 때는 사측의 개약안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투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로 저항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투쟁은 선거 이후 새 집행부 하에서 하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선거가 한창일 10월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약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정부는 노사정 야합 이후 지침 발표와 법 개약안 마련 등 노동 개약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이에 맞서 지금 저항을 시작하고 11~12월로 이어나가야 한다.

노사정 야합 직후 민주노총이 호소한 9·23 총파업은 비록 많은 사업장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급박한 일정에도 꽤 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이후 투쟁 가능성을 보여 줬다.

최근 민주노총은 10월 12~17일을 노동시장 구조 개약 분쇄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는 10월 15일 파업을 할 예정인데, 이를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으로 결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이 10월 중순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 기간에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오른팔 격인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결의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전체 투쟁에 탄력을 줄 수 있다.

특히 좌파 활동가·대의원들이 비상시국에 걸맞은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10월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단협에만 기대서는 노동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의 노동 개약 공격은 현대차 밖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이런 점을 조합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3월 노동 개약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 개약의 핵심인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는 정몽구 같은 자본가들의 오랜 바람이다. 예컨대, 현대차 사측이 올 초 '고임금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호봉제 폐지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사측은 상반기 내 내 소위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인사과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 직무·기능에 따른 능력급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근혜는 이런 자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개약의 칼을 빼 들었다. 통상임금 범위 축소의 계기가 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듬해 노동부 지침이 우리 현대차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에 이를 법제화하려 한다.

사측이 이경훈 집행부와 교섭을 더 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와 교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지침과 법 개약이 추진되면 보다 손쉽게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법 개약을 막지 못하면, 우리 현대차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대차지부의 힘이 세니까 단협으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노동 개약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박근혜의 노동 개약은 특히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다.

현대차지부처럼 힘 있는 노조는 단지 조합원뿐 아니라 이런 광범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도 함께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더구나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약안은 제조업 생산의 기본이 되는 주조·금형·용접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짓밟고, 오히려 파견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불법파견 합법화는 정몽구의 오랜 바람이다. 사측은 그동안 법원 판결조차 아랑곳 않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한편, 서유럽 국가들을 사례로 들며 파견 합법화를 주장해 왔다. 이미 몇 해 전에는 제조업 불법파견을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으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내며 꺾꽂이 싸워 왔다. 최근에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63%의 높은 반대로 신규채용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며,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법 개약안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확대 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선거 기간이라고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가장 잘 조직돼 있고 투쟁 경험도 많은 현대차지부가 노동 개약 저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조건을 지킬 수 있고,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비록 선거 기간이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현대차지부에 요구되는 투쟁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총력투쟁 기간에 맞춰 현대차지부의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시오.

문의 : 정동석(현대차, 010-8363-5695), 김우용(기아차, 010-3092-9003)